고규홍의 '나무 생각'

지는 꽃이 아름답다

바람 차가워도 봄빛 또렷하다. 만개한 매화의 풍치를 찾아 길 위에 오른 탐매객들의 발길이 매화 명소 주변 도로를 가득 채운다. 복수초에 이어, 노루귀·족두리풀·풍년화·영춘화·수선화가 활짝 피었다. 지난여름부터 애면글면 부풀어 오르던 목련 꽃봉오리도 드디어 벌어졌다.

봄에 피는 꽃에는 혹한의 추위를 이겨낸 결기가 담긴 까닭에 더욱 아름답다. 그러나 다른 계절에 피어나는 꽃들에 비해 아쉬움을 더 많이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오랜 기다림과 설렘을 메우기에는 꽃들이 우리 곁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피어 있는 시간이 짧아 아쉬운 꽃으로는 목련이 대표적이다. 잎보다 먼저 피어나는 목련 꽃은 꽃송이가 큰 데다, 순백의 화려함이 매우 돋보인다. 재우쳐 봄 마중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목련은 환희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더불어 목련을 떠올릴 때마다 '꽃이 너무 일찍 진다' 혹은 '떨어진 꽃잎이 처참하다' 등의 아쉬움을 덧붙이곤 한다.

목련을 비롯한 봄꽃이 일찍 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까닭을 알아보려면 먼저 꽃이 피는 목적, 꽃의 존재 이유부터 짚어보아야 한다. 세상에 이유 없는 존재는 없다. 꽃에도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다.

평생을 한자리에 붙박고 사는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옮겨 붙이려는 목적이다. 열매와 씨앗을 맺기 위한 첫 단계다. 씨앗을 맺어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한 시작이다. 종족 번성은 모든 생물의 생존 이유이자 목적이다. 수정을 위해 피어난 꽃은 꽃가루받이를 마친 뒤에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더 이상 나뭇가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시들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다.

종류에 따라 꽃이 피어 있는 시간의 길이는 조금씩 다르다. 그 가운데 봄에 피는 꽃의 개화 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까닭이 있다. 봄은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 풀과 나무들이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이 시기에 맞춰 곤충들의 활동도 눈에 띄게 활발해진다. 꽃샘바람 맞으며 활동에 나선 곤충들에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꽃샘추위를 이겨 내려면 부지런히 먹이를 모아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숲속에서 함께 살아 온 식물이 이 같은 곤충의 사정을 모를 리 없다. 식물은 꽃을 피워 벌 나비를 끌어들여 수정을 이루고, 벌 나비는 꽃송이 안의 꿀을 얻는다. 자연히 꽃의 목적인 수정이 쉽고 빠르게 성취된다. 꽃을 피울 때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 화려하게 몸치장을 했지만, 목적을 이룬 뒤에는 더 이상 화려해야 할 이유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 아무 미련 없이 꽃은 생을 마감하고 추락한다.

꽃가루받이의 한순간을 위해 목련은 지난여름에 꽃봉오리를 맺고 수굿이 몸피를 키워 드디어 파란 봄 하늘 아래 화려하게 피었다. 그러나 금세 수정을 이룬 목련 꽃이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 미련 없이 다 버려야 한다. 다른 꽃의 수정을 위해 목련은 찰나에 누린 영화를 내려놓는다. 꽃잎의 추락은 꿀을 찾아 나선 벌 나비에게 자신이 수정을 마친 꽃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장엄한 추락이다.

시들어 떨어지는 꽃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신호를 남기는 꽃도 있다. 여름에 피는 수국 꽃이 그렇다. 수국은 벌의 눈에 잘 띄기 위해 꽃송이 주위에 크고 화려한 헛꽃을 피운다. 벌이 수국 꽃의 꽃가루받이를 이뤄 준 뒤에 헛꽃은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 준다. 벌의 도움이 필요 없어진 수국의 헛꽃은 다른 나무의 꽃가루받이를 돕기 위해 놀라운 변신을 시도한다. 하늘을 향해 피어났던 헛꽃은 땅을 향해 꽃잎을 백팔십도 뒤집어엎는다. 혹시라도 찾아올 벌에게 '나는 이미 혼사를 마쳤으니, 다른 꽃을 도와주세요'라는 신호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식물의 지혜다. 수만, 수억 년 동안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뤄 온 생명의 원리다.

물러나는 순간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등바등하는 건 사람 뿐이지 않나 싶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잇속을 챙기려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뒷모습은 추악하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때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생명의 이치다. 아집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물러가야 할 이유에 승복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탐욕이 이 땅의 봄을 서글프게 하는 날들이다.

아름다움은 가증스러운 미소와 화려한 머리치장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충실하게 따르는 데에서 나온다. 지는 꽃이 아름다운 까닭이다. 생명의 이치에 승복하고 장엄하게 추락하는 꽃잎 앞에 한없이 고개를 숙인다.

〈나무 칼럼니스트〉

기 고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단상

손 진 홍
손진홍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리디아의 왕 칸다울레스의 목동이던 기게스(Gyges)는 지진이 일어난 후 생긴 동굴 안에서 거인이 끼고 있던 반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반지의 흠집 난 곳을 안으로 돌리면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고 밖으로 돌리면 자신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궁전에 들어간 기게스는 마법 반지를 이용하여 투명인간이 된 후 왕비를 간통하고 칸다울레스 왕을 암살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리디아의 왕이 되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인용)

대통령이 탄핵·파면되었다. 탄핵결정 사유는, 대통령이 사인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지원 등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두 은폐함으로써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하였고,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하여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하였다는 것. 이러한 국민에 대한 신임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국민담화와 달리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그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규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러한 탄핵국면에서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소위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자신이 뽑은 대통령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였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그를 위해 남용하였으며 결국 그 권한과 권력을 그 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그에 의해 통치당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대리인 정부가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동안 그토록 믿고 의존해왔던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악의 극단적 결론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철인정치를 꿈꾸면서 통치자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현명하고 명예욕과 사리사욕이 없으며 오로지 국민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전(前) 대통령은,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정신세계, 전문적인 능력과 역량, 직업적 소명의식 및 책임감 등에 있어서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덕목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하는 준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국민과 국민의 자유, 행복을 위한 목적이 아닌 국민을 단순히 수단으로 여기는 일에 힘써왔음이 드러났다.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사악한 '기게스의 반지'를 끼워준 것일까. 이른바 '헬조선'이란 말을 쉽게 내뱉으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조하였던 바로 우리들이 아무런 역량도 능력도, 그리고 책임감도 없는 그들에게 그 반지를 기꺼이 선물하여 바쳤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고의 정치체제는 아니다. 문제도 많고 부작용도 많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시민 개개인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아무리 정치가 잘못되어 현실정치가 역겹고 화가 나더라도 '정치혐오'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그럴수록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건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생각을 고치고 수정하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른바 '철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소통하는 자세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고민하며, 그리고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대통령이라도 우리 곁으로 오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가장 저열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기 고

누가 공간에 시간을 비출 것인가

천 세 진
시인·문화비평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1관 'Node 5 : 5' 앞에 다시 섰다. 붉은 레이저가 거대한 검은 공간으로 날아가 공간을 분할하기 시작했다. 검은 공간 여기저기서 하얀 깨어남이 나타나고, 깨어난 공간들은 파열과 연결, 합병과 산개(散開)를 연출했다. 인간의 문명이 저런 형상을 가졌을 것이었다. 인간의 문명을 10분의 영상으로 표출하라면 저렇게 그려질 것이었다.

검은 공간은 문명의 발흥을 기다리는 혼돈이었고, 쏟아지는 붉은 레이저는 문명을 파괴하거나 깨우는 계기들이었다. 반응하는 공간이 쏟아내는 하얀 빛의 온갖 형상들은 문명의 양상이었다. 레이저가 닿을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온갖 격한 소리들은 역사적 격랑에 반응하는 인간과 공동체의 음성이었다.

인간의 생은 'Node 5 : 5'가 보여주는 것처럼 점·선·면, 시간의 복잡한 직조다. 무수한 생들이 공간에서 시간에 의해 겹쳐지고 나누어졌다. 그렇게 문명과 역사가 탄생하고, 인간들은 소리를 내며 다른 생을 밀어내거나 다가가거나 겹쳐졌다. 레이저와 만나 만들어지는 일직선, 수직선, 수평선, 원, 삼각형, 사각형의 구획은 인간의 문명이 담긴 그릇의 형상이었고, 이념과 생각의 구분들이었다. 'Node 5 : 5' 앞에 서서 인간의 문명을 그렇게 그려보았다.

전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키네틱아트 'Node 5 : 5'를 두 번 볼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아쉬움을 달래다가 잠시 이런 생각을 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운 좋게도 어느 도시도 갖지 못한 아주 커다란 문화의 배에 영구 탑승한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다만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바로 머리 위에서 펼쳐지는 향연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난 1월 말, 작가들과 직접 만났을 때, 작가들은 해석의 권한을 관객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술작품이 탄생하여 관객들에게 전해진 순간부터 관객의 해석이 오독(誤讀)이자, 곧 정독(正讀)이라는 사실을, 관객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개관 직후 '산해경'을 주제로 첫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콘텐츠가 적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던 때였다.

'산해경'은 미디어산업에 상상력을 제공한 동양의 보고(寶庫)다. 일본은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반가운 마음에 세미나장으로 달려갔다. 자리를 얻지 못할까 걱정했다. 그런데 빈자리가 많았고, 광주가 지향하는 산업방향에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의 장이었음에도 콘텐츠를 걱정했던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비판과 참여가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발걸음이 뒤따르지 않는 질타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문화는 공간이 시간과 사람을 통해 직조되는 것이다.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완벽한 고속도로를 보여 달라는 것은 '문화'를 만들어 갈 참여자로서의 존재를 스스로 지우는 것이다. 공간이 주어지면서 그 공간 안에 들어설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는 누군가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다. 콘텐츠가 아직 다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더 많은 권리가 지금 주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비판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일 수도 있다.

라이브러리파크에는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전시회가 있었다. 전시 공간 벽면에 타고르의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우리에게로 오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성취할 수 있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글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쌓이면서 문화전당에는 이전에 없던 것들이 하나 둘 더해지고 있다. 거대한 스크린 같은 공간에 이 도시의 시간이, 다른 도시의 시간이, 먼 이방의 시간이 찾아와 실 꾸러미를 풀어내고 있다. 멋진 옷 한 벌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 욕심으로는 그 옷이 아주 오랫동안 완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공간에서 실을 들고 찾아왔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실 꾸러미로 아름다운 옷을 짜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질문에 답할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다. 욕심으로는 남에게 주지 않고 한 자리 참여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 없을 것이다. 무수히 많은 자리가 직조공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社 說

정부가 사실상 확인한 4대강 사업의 실패

4대 강 녹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洑)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여름이면 창궐하는 녹조를 줄이기 위해서 하천에 물이 풍부할 경우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했다가 방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는 엊그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당초 '보를 쌓으면 수자원이 풍부해져 수질도 좋아진다'던 4대 강 사업의 취지에서 후퇴한 것이다.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인 4대 강 사업의 실패를 사실상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계 운영 방안은 하천 유량과 유속을 증가시킴으로써 물이 체류하는 시간을 감소시켜 녹조 발생을 줄이는 내용이다. 댐-저수지의 비축 수량이 있는 경우엔 상류에 비축된 물을 1~5일간 하류보로 흘려보내고 보의 수위를 일정 기간 낮은 상태로 유지하며 비축 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보의 수위만을 낮게 조절하는 보와 보 간 연계 운영 방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운영 방안의 시행을 위해선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와 양수장 등을 손봐야 하는데 총 638억 원이 든다고 한다.

환경단체들도 정부의 대책에 비판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용역 결과가 수문 전면 개방을 미루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 강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만이 해법이며 정부가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 강 사업엔 22조2000억 원이 투입됐다. 초기부터 환경단체와 언론은 '보를 쌓으면 수질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4대 강 사업은 우리나라 물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통탄할 일이다.

광주시 공공기관장 공백 조속히 해결해야

올 초 윤장현 광주 시장의 인적 쇄신 방침에 따라 진행된 광주시 산하 8개 공공기관장 공모 절차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공모를 마감한 8곳 기관 가운데 5곳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재공모 결정이 나면서 인선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시장의 인적 쇄신 카드가 자칫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와 산하 기관 등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 광주여성재단,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발도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한다. 도시공사는 최종 추천된 3명 후보 중 일부 후보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이른바 '셀프 추천' 논란으로 재공모 결정이 났다.

여성재단과 광주교통 약자지원센터는 임명권자인 윤 시장에게 후보가 복수 추천됐으나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돼 재공모에 나섰고 도시철도공사와 문화재단도 2명이 추천됐으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사표가 수리된 8곳 중 공모 절차를 마무리한 곳은 평생교육진흥원 1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들 기관의 공석 사태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3개월간 기관장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재공모가 결정되면서 인선 절차와 일부 기관장의 청문회까지 마치려면 앞으로도 1~2개월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공공기관장의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쳐야 한다. 인적 쇄신의 취지였던 유능한 전문가 영입을 위해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 타 지역 인사들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으로 인재풀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공기관의 업무 공백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無 等 鼓

푸짐한 시장 인심

낯선 고장에 가면 꼭 들러 보는 곳이 있다. 요즘엔 작은 책방이 영순위다. 시장 나들이도 빼놓지 않는다. 몇년 전부터는 시장에 문화 예술이 접목되고, 청년 상인들이 둥지를 틀면서 볼거리·살거리·먹을거리가 훨씬 풍성해졌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엔 멋진 빈티지 가게 '송옥여관'과 디자인 소품점 '미스터리 상회'가 있다. '줄'을 서서 따뜻한 빵을 사 먹었던 '1913송정역 시장'의 '또와식빵'은 충장로와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등에 분점을 내며 '전국구 스타'가 됐다.

청년들이 일으킨 새바람이 유쾌하고 흥미롭다면, 터줏대감 상인들의 푸짐한 인심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다. 한 달 전 대인시장에서 딱 그 기분을 느꼈다. 테이블이 세 개 뿐인 국숫집('대인분식')에서다. "이렇게 싸게 팔아서 장사가 돼요?" 누군가 말문을 열자 옆 사람이 바로 거든다. "우리야 너무 고마운데, 오백 원만 올려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주변 사람들도 일제히 "그러라"고 맞장구 친다. "혼자서 하니 그럭저럭 할 만해요. 와서 먹어 주시는 게 감사하지요." 할머니가 끓여 주는 국수는 2000원, 함께 시킨 도넛은 4개에 1000원이었다.

시장에 다녀 온 이후 '싸고 맛있는' 국수가 떠오르면 자꾸 입안에 침이 고였다. 며칠 전 다시 찾았을 땐 아쉽게도 쉬는 날이어서 이번엔 그 유명한 '장터국수'를 찾았다. 이곳 국수 가격은 1000원이다. 둘이서 국수 두 그릇에 부추전과 오뎅까지 먹었지만 가격은 단돈 5000원. 계산할 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다. 시장 구경을 하는데 이번에는 1000원 백반집 '해 뜨는 식당'이 보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코끝이 시큰했다.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은 서민 정치를 하겠다며 죄다 시장으로 몰려가곤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상인들 손잡고 사진 찍으며 '표'를 호소할 때뿐이다. 정치인들이 상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세상 사는 거 힘들어도 우리 다 같이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자'는 그 마음일 거다.

걷기 좋은 계절이다. 가까운 시장에 들러 따뜻한 시장 인심을 느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음엔 남광주시장 나들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